



충분히 존경받을 만해

- * 글 : 임서경
- * 그림 : 시은경
- * 펴낸곳 : 단비어린이
- * 정가 : 12,000원
- * 분량 : 144쪽
- * 대상 : 초등학생

·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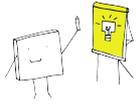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주위를 잘 살펴봐, 분명히 네가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 있을 거야!
그것도 아주 많이...

나라를 구하거나 획기적인 발명을 통해 세상을 뒤바꾸는 위대한 위인도 있지만,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아요. 《충분히 존경받을 만해》는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동화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꾀꿉이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노력하는 용 선생과 환경을 위해 그 누구보다 분리수거에 힘을 쓰는 재활용 박사 로운이 아빠, 팍팍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채이 엄마와 사람들의 숨길을 열어 준 채이 할머니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지요. 그들이 펼치는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어서 들어가 봐요.

· 주요 독후활동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나는 어떤 사람을 존경하나요? 내가 생각하는 존경받을 만한 기준이 있나요?
2. 뒤표지에는 각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려져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재밌을 것 같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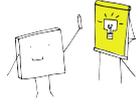
※ (3~4) 《충분히 존경받을 만해》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왜 가장 존경받을 만하냐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하지 않아도,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우리 모두가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용 선생님, 재활용 박사 아저씨,
조은주 아줌마, 공 여사 할머니를 만나면 알 수 있습니다.

3. 뒤표지에는 어떤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쓰여 있나요?
4. 이 책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누가 나오나요?
5. 나에게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있나요? 어떤 모습인가요?



독서 후 어휘력 쑥쑥 키우기

※ 책에 나오는 비유 표현을 읽고, 어떤 뜻으로 쓰인 건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뒤에 빈칸을 채워 나만의 비유 표현으로 바꾸어 보세요.

비유 표현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	나만의 비유 표현으로 바꾸기
용 선생은 장작불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얼굴이 확확 달아올랐다.		용 선생은 () 것처럼 얼굴이 확확 달아올랐다.
용 선생은 쑥스러워 얼굴이 벚꽃 이 되었다.		용 선생은 쑥스러워 얼굴이 ()이 되었다.
개가 무서워서 가슴에서 쿵쿵 북소리가 났다.		개가 무서워서 가슴에서 쿵 쿵 ()가 났다.
벚꽃을 보면 꼭 팝콘 같아 손이 저절로 갔다.		벚꽃을 보면 꼭 () 같 아 손이 저절로 갔다.
하랑이는 개미 만 한 소리로 말했다.		하랑이는 ()만 한 소 리로 말했다.

2. 밑줄 친 낱말 ‘좁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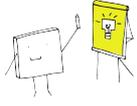
내가 그 정도도 이해 못 할 사람 같아 보이나요? 선생님 그렇게 속 좁지 않아요.

▶ 좁다

3. 마음 쓰는 것이 너그럽지 못하다.

좁은 소견.

이를 참고로, ‘좁다’를 넣어 문장을 지어 보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한 바퀴 용 선생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야, 어린 게 말이야. 도둑질이나 하고. 너 딱 걸렸어.”

편의점 아저씨가 어떤 아이에게 화가 잔뜩 나서 소리쳤다.

“아니예요. 계산하려고 했다고요.”

용 선생은 몸을 돌려 아저씨와 그 아이를 쳐다보았다. 용 선생은 깜짝 놀랐다. 바로 하랑이였다. 하랑이 손에는 삼각 김밥과 과자가 들려 있었다.

“너, 거기 가만있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쪼끄만 게 말이야.”

편의점 아저씨는 하랑이에게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 도건이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면 억울함을 토로했다. 용 선생은 도건이 입장에서 도건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었다.

“많이 억울했겠다. 속상했지?”

용 선생은 도건이 손을 잡아 주고 어깨를 토닥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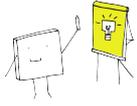
“도건아, 네가 이해해. 혹시 하랑이에 대해 아는 거 있니?”

1. (가)에서 편의점 아저씨와 (나)의 용 선생님은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각각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적어 보세요.

편의점 아저씨	용 선생

2. 내가 용 선생이라면 편의점 아저씨에게 뭐라 말했을 것 같나요? 용 선생이 되어 (가)의 에 들어갈 말을 적어 보세요.

3. 용수인 선생님은 어떤 점이 존경받을 만한가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재활용 박사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아빠 사람들이랑 싸우지 좀 마.”

“사람들이 분리수거 개념이 없어. 이런 싸움은 계속해야 해. 그래야 환경을 살리지. 다 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빠는 얼음이 동동 떠 있는 미숫가루를 내밀며 말했다.

“아빠, 나를 위하는 게 뭔지 알아? 친구들에게 놀림당하지 않게 사람들이랑 쓰레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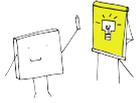
(나)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로운이 아빠가 우리 아파트 환경지킴이예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로운이 아빠가 분리수거 설명을 잘해 줘서 엄마도 분리수거 잘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인기 좋은 아저씨예요. 로운이 아빠가 재활용 박사라니까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나랑 별로 친하지 않은 여자아이가 말했다. 그 말을 들으니 어깨가 으쓱해졌다.

1. (가)와 (나)에서 아빠에 대한 로운이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	(나)

2. 로운이 아빠는 환경 지킴이의 모습 말고, 또 어떤 점이 존경받을 만할까요?

3. 여러분도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하는 일이 있나요? 내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하는 일을 소개해 주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물길, 숨길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나는 싫다고. 엄마가 마트에서 일하는 것도 싫고, 노래하는 것도 싫어. 그런데 이제 할머니까지 목욕탕에서 때를 민대. 할머니가 수도꼭지를 고친다고 애들이 놀린단 말이야.”

아, 순간 말을 해 놓고 속으로 뜨끔했다. 솔직히 놀린 애는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민이도 날 놀린 건 아니었다. 오히려 할머니더러 마법의 손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난 정말 싫다. 창피하다.

(나) “채이야, 할머니는 혼자서 등을 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손을 잇는 역할을 하는 거야. 할머니의 손이 사람들의 몸을 깨끗하게 해. 또 혼자서 때를 밀 수 없는 아픈 사람들에게도 할머니의 손이 필요하지.”

(다) “채이야, 다민이 엄마가 보석 사우나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글썄 채이 할머니께서 빨리 발견을 하셨다니 뭐니. 바로 심폐 소생술 응급처치를 하고 119 불러서 고비를 넘기셨대. 채이 할머니님 대단하신걸. 젊은 사람들도 쉽지 않은 일을…….”

1. (가)에서 채이는 할머니의 어떤 점을 부끄러워하고 있나요?
2. (나)와 (다)에 나온 이야기를 듣고, 채이는 할머니의 직업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나요?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나요?
3. 채이 할머니는 어떤 점이 존경받을 만한가요?
4. 채이처럼 특정한 직업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채이와 같지는 않나요? <물길, 숨길>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할머니의 직업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나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④ 물길, 숨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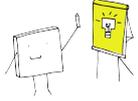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집에서 나와 엄마가 일하는 마트 쪽으로 걸어갔다. 마트가 가까워지자 엄마의 노랫 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마트에서 하루에 한 번씩 10분 정도 노래를 한다고 했다. 손님들 을 위한 이벤트라나 뭐라나. 엄마의 노래를 듣기 위해 손님들이 그 시간에 더 많이 온다 고 엄마가 매일 자랑이다. 엄마는 노래를 좋아한다. 가수가 꿈이었다는데 아직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은 엄마다. 노래자랑만 있으면 다 나가는 게 그 증거다. 70번은 더 나갔을 거 다. 엄마는 100번 나가 보고 안 되면 포기한다고 했다.

(나) “자, 장려상, 금상 발표를 했으니 이제 대상만 남았습니다. 과연 누가 받을지 여러분 들도 궁금하시죠? 자, 두구두구두구 대상은 참가 번호 5번 조은주!”
할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

1. 채이 엄마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2. 채이 엄마는 어떤 점이 존경받을 만한가요?
3. 내가 채이의 엄마라면 수상 소감을 어떻게 말했을 것 같나요? 채이 엄마가 되어 에 들어갈 수상 소감을 채워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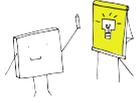
독서 후 사고력 쑥쑥 키우기

1. 이야기 속에 나온 주인공들을 인터뷰해 보세요. 각 질문에 주인공들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인터뷰 대상	질문	대답
용수인 선생님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도훈 아저씨	아저씨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조은주 아줌마	아줌마는 어떤 사람을 가장 존경하나요?	
공여사 할머니	할머니, 사람을 구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2.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주제로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세요.

인터뷰 대상	질문	대답



독서 후 창의융합_ ① 상장 만들기

※ <재활용 박사>에서 로운이 아빠는 ‘환경 지킴이 상’을 받습니다. 다른 이야기의 주인공들에게는 어떤 상장을 주면 좋을까요? 주인공들에게 상장을 만들어 주세요.

상 장

4학년 1반 담임
용수인

상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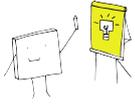
이도훈

상 장

조은주

상 장

공여사 할머니



정답과 해설(예시 답안)

2쪽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시 답안) 자기가 말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예시 답안) 공 여사 할머니의 이야기가 재밌을 것 같다. 숨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의 의미가 궁금해서 호기심을 자극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든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쓰여 있다. 용 선생님, 재활용 박사 아저씨, 조은주 아줌마, 공 여사 할머니. (예시 답안)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이런 모습이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3쪽	<ol style="list-style-type: none"> <table border="1" data-bbox="268 719 1262 1395"> <thead> <tr> <th>비유 표현</th> <th>어떤 뜻으로 쓰였을까?</th> <th>나만의 비유 표현으로 바꾸기</th> </tr> </thead> <tbody> <tr> <td>용 선생은 장작불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얼굴이 확확 달아올랐다.</td> <td>⇒ (예시 답안) 부끄럽고 민망하다.</td> <td>⇒ (예시 답안) 용 선생은 (찜질방에 들어간) 것처럼 얼굴이 확확 달아올랐다.</td> </tr> <tr> <td>용 선생은 쑥스러워 얼굴이 벚꽃이 되었다.</td> <td>얼굴이 핑크빛이 되었다.</td> <td>용 선생은 쑥스러워 얼굴이 (딸기 맛 사탕)이 되었다.</td> </tr> <tr> <td>개가 무서워서 가슴에서 쿵 쿵 북소리가 났다.</td> <td>북처럼 커다란 소리가 났다.</td> <td>개가 무서워서 가슴에서 쿵 쿵 (공룡 발자국 소리)가 났다.</td> </tr> <tr> <td>벚꽃을 보면 꼭 팝콘 같아 손이 저절로 갔다.</td> <td>팝콘처럼 하얗고, 동그랗다.</td> <td>벚꽃을 보면 꼭 (수제비) 같아 손이 저절로 갔다.</td> </tr> <tr> <td>하랑이는 개미만 한 소리로 말했다.</td> <td>아주 작은 목소리.</td> <td>하랑이는 (진드기)만 한 소리로 말했다.</td> </tr> </tbody> </table> (예시 답안) 그렇게 속이 좁아서 어떡할래? 	비유 표현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	나만의 비유 표현으로 바꾸기	용 선생은 장작불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얼굴이 확확 달아올랐다.	⇒ (예시 답안) 부끄럽고 민망하다.	⇒ (예시 답안) 용 선생은 (찜질방에 들어간) 것처럼 얼굴이 확확 달아올랐다.	용 선생은 쑥스러워 얼굴이 벚꽃이 되었다.	얼굴이 핑크빛이 되었다.	용 선생은 쑥스러워 얼굴이 (딸기 맛 사탕)이 되었다.	개가 무서워서 가슴에서 쿵 쿵 북소리가 났다.	북처럼 커다란 소리가 났다.	개가 무서워서 가슴에서 쿵 쿵 (공룡 발자국 소리)가 났다.	벚꽃을 보면 꼭 팝콘 같아 손이 저절로 갔다.	팝콘처럼 하얗고, 동그랗다.	벚꽃을 보면 꼭 (수제비) 같아 손이 저절로 갔다.	하랑이는 개미만 한 소리로 말했다.	아주 작은 목소리.	하랑이는 (진드기)만 한 소리로 말했다.
비유 표현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	나만의 비유 표현으로 바꾸기																	
용 선생은 장작불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얼굴이 확확 달아올랐다.	⇒ (예시 답안) 부끄럽고 민망하다.	⇒ (예시 답안) 용 선생은 (찜질방에 들어간) 것처럼 얼굴이 확확 달아올랐다.																	
용 선생은 쑥스러워 얼굴이 벚꽃이 되었다.	얼굴이 핑크빛이 되었다.	용 선생은 쑥스러워 얼굴이 (딸기 맛 사탕)이 되었다.																	
개가 무서워서 가슴에서 쿵 쿵 북소리가 났다.	북처럼 커다란 소리가 났다.	개가 무서워서 가슴에서 쿵 쿵 (공룡 발자국 소리)가 났다.																	
벚꽃을 보면 꼭 팝콘 같아 손이 저절로 갔다.	팝콘처럼 하얗고, 동그랗다.	벚꽃을 보면 꼭 (수제비) 같아 손이 저절로 갔다.																	
하랑이는 개미만 한 소리로 말했다.	아주 작은 목소리.	하랑이는 (진드기)만 한 소리로 말했다.																	
4쪽	<ol style="list-style-type: none"> <table border="1" data-bbox="268 1529 1299 1722"> <thead> <tr> <th>편의점 아저씨</th> <th>용 선생</th> </tr> </thead> <tbody> <tr> <td>⇒ 예시 답안)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의심하고 화를 낸다.</td> <td>⇒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정을 이해하려고 애쓴다.</td> </tr> </tbody> </table> 예시 답안) 어린아이라고 마음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예시 답안)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와주려는 모습이 존경받을 만하다. 	편의점 아저씨	용 선생	⇒ 예시 답안)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의심하고 화를 낸다.	⇒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정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편의점 아저씨	용 선생																		
⇒ 예시 답안)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의심하고 화를 낸다.	⇒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정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5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나)</td> </tr> <tr> <td>⇒ 예시 답안) 쓰레기 때문에 자꾸 싸움을 하는 아빠가 부끄럽다.</td> <td>⇒ 환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아빠가 자랑스럽다.</td> </tr> </table> <p>2. 예시 답안) 로운이와 할머니를 지키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점 등. 3. 예시 답안) 종이컵이나 일회용품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늘 물병과 손수건을 가지고 다닌다.</p>	(가)	(나)	⇒ 예시 답안) 쓰레기 때문에 자꾸 싸움을 하는 아빠가 부끄럽다.	⇒ 환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아빠가 자랑스럽다.														
(가)	(나)																		
⇒ 예시 답안) 쓰레기 때문에 자꾸 싸움을 하는 아빠가 부끄럽다.	⇒ 환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아빠가 자랑스럽다.																		
6쪽	<p>1. 할머니가 목욕탕에서 일하는 것. 2. 예시 답안) 할머니는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바뀌었다. 3. 예시 답안)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의 몸을 깨끗하게 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해준 것, 다정한 할머니, 엄마인 것. 등 4. 예시 답안) <물길, 숨길>을 읽기 전에는 나도 채이처럼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직업보다 멋지게 입고 회사에 다니는 직업이 좋은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직업이 무엇인지보다 자기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 할머니는 자기 직업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더 멋있어 보였다.</p>																		
7쪽	<p>1. 가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다. 2. 예시 답안)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점이 존경받을 만하다. 3. 예시 답안) 저는 어릴 때부터 가수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70번도 넘게 보았지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니까 이런 날이 오네요. 그동안 제 꿈을 믿고 응원해 준 엄마와, 늘 곁에 있어주는 딸 채이. 고마워! 마트에서 제 노래를 들어 준 고객님들도 감사합니다!</p>																		
8쪽	<p>1.</p> <table border="1"> <thead> <tr> <th>인터뷰 대상</th> <th>질문</th> <th>대답</th> </tr> </thead> <tbody> <tr> <td>용수인 선생님</td> <td>선생님은 어떤 사람이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td> <td>예시 답안)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td> </tr> <tr> <td>이도훈 아저씨</td> <td>아저씨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td> <td></td> </tr> <tr> <td>조은주 아줌마</td> <td>아줌마는 어떤 사람을 가장 존경하나요?</td> <td></td> </tr> <tr> <td>공여사 할머니</td> <td>할머니, 사람을 구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2.</p>	인터뷰 대상	질문	대답	용수인 선생님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예시 답안)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도훈 아저씨	아저씨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조은주 아줌마	아줌마는 어떤 사람을 가장 존경하나요?		공여사 할머니	할머니, 사람을 구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인터뷰 대상	질문	대답																	
용수인 선생님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예시 답안)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도훈 아저씨	아저씨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조은주 아줌마	아줌마는 어떤 사람을 가장 존경하나요?																		
공여사 할머니	할머니, 사람을 구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인터뷰 대상	질문	대답
엄마	엄마는 어떤 사람이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누군가를 위해 마음자리를 내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엄마	마음자리를 내어 준다는 건 어떤 거죠?	내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편안한지 돌아보는 거야.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내릴 동안 문을 잡아 주는 것도 마음자리를 내어주는 거지.
	가이드) 한 사람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해도 되고, 여러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해도 됩니다.	
9쪽	1. (가이드) 아이들이 ‘존경할 만한 점’ 쓴 것을 토대로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10쪽	1. (가이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